

“화두 의심 안 풀려 답답하다고?”

정진이 있으며,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철야용맹정진이 진행되고 있다. 재가자들에게 무리한 수행이 아닌지 걱정을 하였더니 원각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불법은 많이 배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깨닫는데 있으며, 이론보다는 실증이 더 중요합니다. 재가자이든 출가자이든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단지 출가한 스님들은 공부하기 좋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공부인이 많은 것이지, 그 바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당암에서는 동안거 하안거 때 90여 명의 재가자들이 결계를 하고, 1주일 용맹정진에는 250여 명이 입방하고 있다. 삼십대부터 팔십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해암 스님 때부터 지도를 받아 온 20년이 넘는 사람도 있다.

“용맹정진은 혼자서 하려면 하루 저녁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중과 같이 하면 대중의 운급으로 거뜬히 할 수가 있어요. 옛날 스님들께서도 대중과

재가자들은 어떻게 참선공부를 해야 하는지 몰랐더니 “자기 힘 따라 애써 정진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인생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로 정성을 드리고 간절히 해야 됩니다.”라고 하신다.

재가자들을 지도하신다고 물 만난 고기처럼 두려움 없이 스님께 여쭙었다. 초심자들은 화두 드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좋은 공부방법이 있는지를 또 다시 여쭙었다.

“화두는 분별심으로 따져서 알려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화두가 의심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미 화두에 대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답이라고 생각한 이것은 분별심이 답이 아닙니다. 화두는 꼭 막힌 데서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분별심으로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화두 의심이 풀리지 않아 답답하고 재미없다고 하면서 계오름을 피우거나 포

에 깨달으면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원각 스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인사 약수암에 머물면서 시험공부를 했다. 그때 수많은 성인들이나 학교 선생님의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강박관념을 불러 일으켰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인지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참으로 혼란을 겪었다. 어느 날 증봉암의 도립 스님으로부터 법문을 듣게 됐다.

“선도 악도 버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생각도 쉬어야 참말로 살 길이 나온다.”

‘선과 악 양면을 쉬어야 한다’는 가르침은 목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많은 고민들을 단박에 해결해 주었다.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느꼈고, 그때부터 불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나를 보고 도립 스님이 한 번 읽어 보라고 <금강경> <반야심경>, <육조단경> <보조법어> <법구경> 등의 책을 건네 주네요. 그래서 하던 공부는 팽개치고 경전들을 읽어나갔지요. 이런 나를 보고 도립 스님이 출가를 권했습니다.”

문득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갠지 스강의 모래알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이렇게 백천만억 겁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경전을 수지독송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금강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원각 스님은 계행이 청정하고 성품이 대쪽 같았던 해암 스님 밑에서 행자생활을 하였다. 지금은 없어진 해인사 증봉암에서 은사스님과 단 들이 생활했다. 방사가 한 칸 밖에 없어서 은사스님은 아랫목에 원각 스님은 윗목에 앉아서 참선을 했다. 원각 스님께서는 “그때 나름대로 열심히 정진한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해암 스님은 누구에게라도 법문해주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 증봉암에서 새벽예불을 끝내고 해암 스님이 입선축비를 치고 나서 “내가 한 마디만 하겠다”고 말씀을 꺼내시면 밥 할 시간을 넘길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스님 저 밥 지으러 가야 합니다”라고서는 일어서야만 법문은 끝이 났다. 해암 스님께서는 ‘상좌 하나에 지옥이 하나’라고 생각했기에 원각 스님에게 수행자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부터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다.

“밥할 때는 밥물이 넘으면 안 되고, 빗자루질도 밭듯이 하고 방을 닦을 때도 금방 닦은 곳을 밟지 않고 뒷걸음질하면서 닦게 했습니다. 틈집하는 법, 장작패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출가한지 40년이 넘었지만 은사스님의 심문의 일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행자생활 하면서 때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불법에 든 것이 너무 좋아 힘든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은사스님께서 죽었다고 하면 죽는 시늉까지도 했어요. 은사스님께서 잘 못하는 일이 있으면 여지없이 나무라시고 잘하는 일은 칭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간혹 ‘너는 요즈음 사람 안같다’고 하시던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요.”

아마도 은사스님께서 참으로 많이 아끼신 것 같다.



원각 스님 (해인사 유나)

잠 쏟아지고 망상 돌아나도 극복해야 ‘진전’

논리적 사고로는 참선 안돼 ... 활구 깨쳐야

경제 어려울수록 본래마음 찾는 공부하라

원당암은 ‘해인사 1번지’ 같은 상징적인 암자다. 해인사 원당암은 조계종 10대 종정을 지내신 해암 스님께서 중창해 열반하실 때까지 주석하셨던 곳이다. 지금은 해암 스님의 상좌 원각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 원각 스님은 해인 총림의 유나소임을 맡고 있으며, 원당암 달마선원의 선원장이기도 하다.

원당암에 들어서면 산중사찰 같지 않고 도회의 절처럼 말끔하게 단장돼 있다. 보광전, 선방, 심검당, 미소굴, 무설실, 염화실 등 열 채가 넘는 당우들이 가야산 중허리쯤에 자리 잡고 있지만 전혀 산을 거슬러 지 않는다. 산과 당우들의 조화로운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을 준다.

원각 스님은 해암 큰스님께서 말년에 머물렀던 미소굴(微笑窟)을 ‘해암 스님 기념관’으로 꾸며 놓았다. 그 안에 들어서면 해암 스님께서 법문을 기록해

둔 원고와 돌보기, 주장자 등이 전시되어 있어 큰 스님의 체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 미소굴 옆에는 ‘공부하다 죽어라’는 해암 스님의 금구(金句)가 새겨진 통나무가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 서 있다. 해암 스님의 간결한 사자후를 듣는 것 같아 이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해암 스님은 생전에 “마음공부 하는데 어찌 승가와 재가의 구분이 있을 수 있나”며 원당암을 재가불자들의 수행공간으로 활짝 열어놓았다. 현재 달마선원은 국내 최고의 재가자 참선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은사 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그대로 행해 온 원각 스님의 숨은 노력 덕분이다.

이곳에서는 재가자들의 하안거와 동안거 결계가 있으며 산철에도 60일씩 결계를 해 공부의 끈을 늦추지 않는다. 음력 7월 1일부터 8일까지, 그리고 음력 12월 1일부터 8일까지 두 차례의 7일 철야 용맹

같이 공부하면 대중이 필반은 공부를 해준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물론 정진을 제대로 해야겠지만 이 공부는 애쓰는데서 깨닫기 생긴다고 했습니다.”

해암 스님께서 상좌 스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누누이 하신 말씀이 있다.

“사람 몸 맑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려우니 좋은 인연 만났을 때 이 몸 제도하지 않으면 어느 생에 이 몸을 제도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은 때가 있으니 때를 놓치지 말라.”

원각 스님 또한 세월이 지나고 보니 정말 가슴에 사무치는 말씀이라 행자들에게 강조한다.

“몸뚱이가 있어야 공부하는 것, 몸뚱이가 말 잘들을 때 공부해야 하고 힘이 있어야 공부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육신도 말을 안 듣고 정신도 혼미해져서 공부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공부해야 합니다.”

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계를 극복해야만이 진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원각 스님은 현대인들의 논리적인 사고로는 참선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용성 스님의 일화를 들려주었다.

“하루는 어떤 스님이 용성 스님께 와서 도를 물으니 ‘네가 허공을 허공과 똑같이 그려 낼 수 있나?’고 물었습니다. 그 스님이 ‘허공은 위도 없고 밑도 없고 가도 없고 가운데도 없고 물을 뿌려도 물이 들지 않고 불에 태워도 타지 않는 것이 허공 아닙니까?’ 하니 용성 스님께서 ‘언제 허공이 너보고 그렇게 말하더냐? 네가 허공을 화작(化作)해 가지고 허공의 본모습을 매개해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네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허공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그것은 설명이고 말이지 허공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사스님들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활구(活句)하에 깨달으면 불초(佛祖)의 스승이 되고 사구(死句)하

스님들의 건강관리는 파워봉이 최고!

20년전 어느날 수녀님들이 비구니스님들께 권하셔서 전국 선방에 빠짐없이 보급되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수많은 분들이 사용중입니다.

- 미국 FDA가 인정한 육각성 파워봉 -

변변한 광고없이 입소문으로 20년을 이어온 힘의 원천은 속효성 때문입니다. 한번만 체험해보면 몸이 먼저 알게되는 초강력 파워!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어디든지 지그시 눌러만 주세요.

목, 어깨, 허리, 좌골, 무릎, 발목, 손목, 등, 고관절

미국FDA등록 MEDICAL DEVICE NO. 890.3490

특허청등록 디자인 0274541

한번사용해보신분이 선물용으로 여러개씩 구입하는 이유를 알고싶지 않으십니까?



파워 21봉

특별보급가 60,000원



파워 13봉

특별보급가 39,000원 (시중가 36만원)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 보급중!



www.chgg.co.kr 천일학기공 연구회 02)3436-3206~7 동협 1149-12-090771 예금주: 이영숙

ISA규정번호 890.5660, ACCESSION NO 0780530-000

미국 FDA에 등록된 자동치료기의 놀라운 효과

국제발명특허 획득! wo2004108049 수입독점공급

첨단과학기술로 탄생한 특수 보석렌즈를 통과한 빛이 어혈을 맑게 하는 자동치료기! 심근경색증 · 협심증 · 만성두통 · 생리통

당뇨, 동맥경화, 뇌혈전, 만성피로, 불면증, 뒷목뻐뻐, 갑상선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손발저림은 3~4일, 만성두통은 7~15일

도끼로 찍는듯한 가슴통증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희소식!

지긋지긋한 편두통, 생리통, 어지럼증 치료! 허혈성심장질환에 탁월!

착용만하면 자동치료



△ POLA 팔찌



△ POLA 반지

* 18년간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실험! KBS일오스페셜 (07.9.30)방영 / MBC통일전망대 (06.11.22)방영 연합뉴스, 문화일보, 한국경제, 내일신문, 조선닷컴, 동아닷컴 보도

콜레스테롤함량, 중성지방, 혈소판응집능, 혈액점도도 · 혈액의 주요지표들이 정상화되며 대사장애를 바로잡고 전신면역기능을 높인다.

만병을 일으키는 오염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방문시 눈으로 직접 보여드립니다.

*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통증은 (두통 · 생리통) 즉석에서 완화되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천일학기공 연구회 02)3436-3206 동협 1149-12-090771 예금주: 이영숙

2호선 구의역 1번출구 바로앞 구동가게건물 205호 <자매품> 파워봉, 글반사방101, 척추사방(신선대)

그때가 공부하기 좋은 때야



해암 스님은 상좌들에게 참선하기를 권했다. “불법은 본심을 깨달아 진리의 삶을 살라는 공부이다. 팔만대장경을 보아도 마음 깨쳐서 중생 제도 하라는 그 말밖에 없음을 가르쳤다. 원각 스님은 은사스님의 뜻을 따라 강원예 가지 않고 참선공부에 들어갔다. 해암 스님께 유일하게 배운 경전이 <초발심자경론>이다.

“해암 스님께서는 다 가르치고 나서는 어떤 대목이 제일 좋냐고 꼭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평등성중(平等性中)에 무피차(無彼此)하고 대원경지(大圓鏡智)에 절친소(絶親疎)’라는 대목이 와 닿는다고 답하니 좋아하셨어요. ‘평등한 성품 가운데 너와 내가 없고 큰 깨달음의 당처에는 가깝고 먼 것이 없다’는 이 구절은 수행자로 살아오면서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각 스님은 처음 해암스님 시작할 때 성철 스님 모시고 세 철을 살았다. 가끔 새벽녘이면 성철 스님께서 “송장 같은 놈들이야” 하고 고함 치시면서 장군장비를 경책해 주실 때는 정신이 번쩍 들고 신심이 절로 났다. 공부에 욕심이 많아 경봉 스님, 구산 스님, 전강 스님, 성철 스님 등 큰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했다.

해암 스님의 “공부하다가 죽어라. 공부하다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옳은 마음으로 옳은 일하다가 죽으면 안 죽는다”는 말씀은 수행의 지침이 되었다. 원각 스님은 당신의 이야기보다는 은

사스님의 이야기 하는 것을 더 좋아 했다.

“68년도에 은사스님께서 하안거 해제하고 지리산 상무주암으로 오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상무주암으로 가니 문수암을 지으려고 터를 닦고 계시네요. 그때 영산 스님과 함께 일꾼들의 밥을 해가지고 1km가 넘는 거리를 지게로 재날랐어요. 스님께서도 일꾼들과 같이 일을 하시면서 감독을 하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암자를 다 짓고 나서는 그해 겨울 한철 사시고 뒷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서는 그곳을 떠나십니다. 간혹 법문해주러 가긴 했지만 그곳에는 머물러 살지 않았습니다.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스님께서도 어디에 사시더라도 떠나실 때는 다음 사람이 잘 살 수 있게끔 식량이나 땀나 무 등을 준비해 놓고 나오셨습니다.”

요즈음 경제가 어려워져서 사람들의 시름이 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침을 구했다.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말라지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하니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부자가 되어도 좋고 나쁜 일은 다 벌어지게 됩니다. 지위가 낮을 때는 지위가 높아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높아져도 좋고 나쁜 것들이 생깁니다. 물론 상대적인 만족감과 성취감은 있겠지만요. 본래심을 깨달아 거기서 돈도

별고 일도 하고 생활해야 진정한 행복이 있고 인생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중생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아도 몰라서 이렇게 육신과 번뇌와 망상에 속아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물집로 인생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스님의 말씀은 수십 년을 좌복 위에서 보낸 수행의 울림이다. 오방색으로 수를 놓았던 가야산도 묵언정전에 들어갈 재치를 하는 것 같았다. 나무들도 분주함을 접고 이렇게 긴 침묵에 들어가려 하는데, 우리네도 한 번쯤은 분주하고 험떨어지는 마음을 쉬어야 할 것 같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원각 스님은 1967년 해암 스님을 은사로 수계. 해인사 극락암 송광사 범어사 상무주암 불국사 상원사 백련사 등 지방 선원에서 수행정진. 그동안 경봉 스님, 구산 스님, 전강스님, 성철 스님 문하에서 공부했다. 은사스님의 지시로 거창 고견사 주지소임을 십년간 맡았다. 지금은 원당암에 주석해 2003년부터 해인사 유나소임을 맡고 있으며, 달마선원 선원장이다.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19>포광 김영수박사

1900년대 우리 불교계에서, ‘불교교리를 가장 깊이 있게 잘 아는 분이 누구냐?’ 하면 ‘김포광 박사(1884~1967)’를 들었다.

필자가 김 박사님을 뵈게 된 것은 대은 스님 덕분이다. 대은 스님이 전주 정혜사나 용인 화운사에 계시는 김포광, 서울에 올라오시면 성북동 아니면 청량리를 꼭 들리고 가셨다. 청량리에는 권상로 박사님이 계시고 성북동에는 김포광 박사가 계시는 때문이다.

“교리에는 김포광, 역사에는 권상로 박사님이니 무엇이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가서 물어라.” 하도 여러 번 들어 잊지 않고 있다. 대은 스님은 언제나 박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눈경사방을 사들고 가서, “오늘은 근본불교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하면 물 흘러가듯,

“거금 3000년 인도 가비라에

은보은’ 사상도 불교의 <심지관경>을 배경으로 하여 조직해 주셨기 때문에 불교의 생활화·대중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소리는 아니지만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다. 종단에서는 대처승이라 하여 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원불교에서는 원불교 창시에 조안을 해주신 공로자라 하여 매년 특강을 초청하고 보은의 행사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실 원불교는 김포광 박사와 김태홍 스님이 아니면 지금쯤은 지구상에서 이미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간부들을 모두 잡아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태홍 스님이 ‘불법연구회는 사교(邪敎)가 아니다. 점차 불교의 일원으로 시대에 맞는 불교를 하기 위해서 일본의 일연정종처럼 새롭게 창시한 종교다’ 하고 증명해 주어서 총독부에서 풀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날 대은 스님과 함께

다가 그 말씀을 하였던데, 유럽 회 회장께서 사실이 그렇다고 고백하셨다.

“원래 이곳이 엄청나게 큰 절터인데 유럽회에서 빼앗아 학자들 양성하는 학교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대원위 대감 때는 윤경열씨께서 신제인 무당에게 당집을 하나 지어주었는데, 지금 은석초등학교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듣고 보니 아리랑고개를 중심으로 둔암동 미이리 일대에 무속집이 즐비한 이유가 있었다. 원래 정법이 뒤집어지면 사법이 되고, 사법이 성하다 보면 미신화되기 때문이다. 박사님은 냉면을 잡수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재·불공으로 연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차라리 학명 같은 생물은 훨씬 좋거든. 이대로 가다가는 조선의 이름난 중들은 큰 절을 지키는 당직이가 되고 말 것이지!”

1900년대 ‘불교교리 가장 깊게 아는 분’으로 통해

서 대성이이 출세하시니, 그 호가 석가모니불 아닌가. 4문 유관하고 노·병·사를 비감하여 설산에 들어가 도를 닦아 보리를 이루시니 그것이 무슨 경계인가. 부사의 해탈경계다. 어느날이 어찌 만물을 만들 수 있겠는가. 4성은 평등하여 고하가 없네.”

하고 쏟아 버린다. 한번은 가니 원불교의 조전권 여사가 와 계셨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원불교의 교리조직을 우리 박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법신불의 상징인 일원(一圓)을 <금강경요가해>에서 찾아 주시고, ‘부처님 당시에는 불상이 없었으니, 이 일원상을 신앙의 표본으로 하라’ 하고, <대중경> 이외에 <금강경> <반야심경> <42장경> <현자오복덕경> <업보차별경> <수심결> <목우심도송> <휴휴암 권선문> 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각정행’ ‘4은4요’의 ‘지

김 박사님을 모시고 오장동까지 걸어갔다. 좋아하시는 냉면을 사드리기 위해서다.”

해화동 고개를 넘으면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한구설 대감의 집이다. 평양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자 새 여자를 얻으려 하니, 큰 부인이 ‘이왕이면 내 친동생을 데리고 사세요’ 하여 한 사람이 친자매를 데리고 산 사람은 한 대감뿐이다.”

그리고 오른 쪽 성군관대 쪽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다.

“저기가 흥륜사 절터지. 옛날 서울에 2궁 3대 사찰이 있었는데, 덕수궁·장경궁과 정동의 흥륜사·묘동의 원각사·해화동의 흥륜사, 이 2궁 3사의 울타리를 타고 지나오면 비한 방울을 맞지 않고 10리 길을 걸을 수 있었어.”

처음 듣는 이야기이다. 성군관대 학이 원래 절터였다는 사실을 언젠가 유럽회관에 주제를 서려 갔

그래서 그런지 박사님 집에 가면 찬 바람이 솔솔 불어왔다. 먹을 것도 그렇지만 입을 것도 없었다. 여름이면 언제나 허름한 마포바지에 노타이. 한번은 정각사 마당에서 큰 재(齋)를 지내게 되었다. 풍곡대학교 조명기 총장님을 비롯해 기라성 같은 학자스님들이 수십 명 모였다. 그런데 한 스님께서

“오늘 법문은 박사님께서 해주셔야 하겠습니까.” 하니 한 교수가 베타이를 풀어 매어 주었다. 보다 못한 스님이 가서 장삼을 벗어 입혀드리니, 베타이 매고 구두신고 가서·장삼 입고 법상에 올라 앉았다.

“영가시어, 나는 당신 덕분에 베타이도 생기고 가서·장삼도 생겨 호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가께서는 이런 웃도 신도 신을 수 있는 물까지 없이 되었으니, 얼마나 흥분하십니까?” 하여 모두 박장대소를 하였다.

스님! 병으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병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최면 시술사 과정)

·개강일: 11월 27일 목요일반 ·개강시간: 오후 1시

▶ 교육기간: 6주(24시간) ▶ 모집인원: 선착순 10명 ▶ 교육비용: 60만원 ▶ 대상: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아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 락 합장 -

자기 최면 특별 수련회

- 주제: 자기 최면 집중훈련
 - 대상: 유마 최면 연구소 평생회원
 - 일시: 2008년 11월 25일 16시 ~ 11월 26일 12시
 - 장소: 정읍 칠보암 수련관
- 자기 최면 완성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을 바랍니다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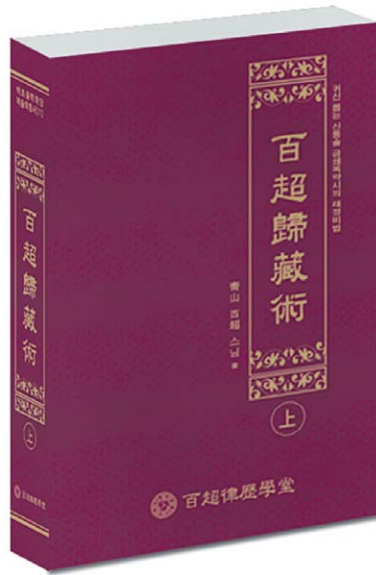


귀신뽑는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래정비법!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속속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 百超백초스님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H.P : 010-3813-4443

입금계좌 (예금주: 조영신)
농협 023-02-478822
신한 010-3813-4443